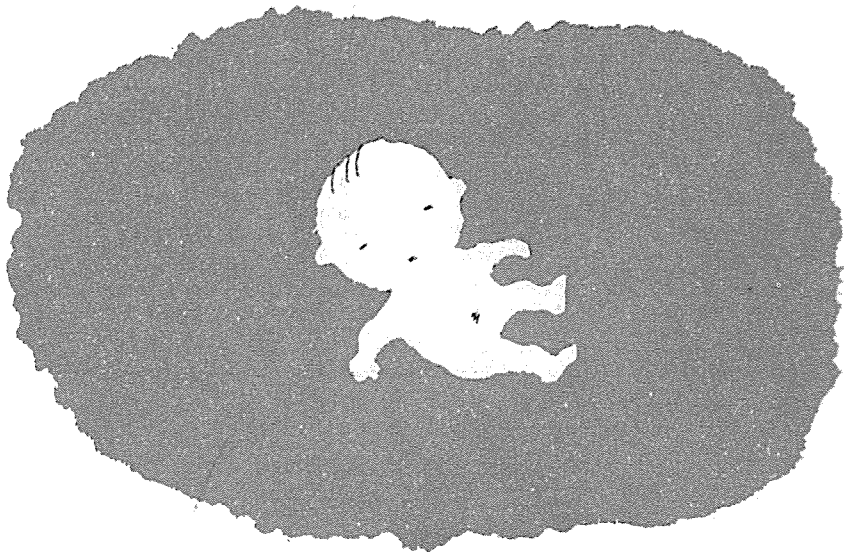


튼튼한 아기는 건강한 어머니로부터 (3)



중요한 마음의 안정

임신을 하게 되면 신경과민이 되기 쉽다.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공포와 불안에 떨기도 하고, 임신에 의한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이로 인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뇌피질을 자극하게 된다. 물론 개인차도 있고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홀몬의 총지휘관인 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ACTH를 보내고, 부신피질로부터 콜기코이드를 분비하여 언청이, 구개파열, 무뇌아, 다지증(多指症) 같은 기형의 발생을 촉진한다.

또 한편으로는 교감신경을 거쳐 부신피

관(副腎髓管)에 영향을 미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킴으로써 혈관의 수축을 초래한다. 이것은 태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태반의 혈류를 방해하여 발육을 저지한다.

이와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태아가 태내에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그 느낌이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기간 중에는 태아의 생활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산모에게 부여된 책임이며, 부친의 협력과 사회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총체적으로 볼때, 어머니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㉞